

## 중소도시 내 대형할인점 입점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원종문 |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중소도시 대형할인점 입점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점 입점을 규제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형점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동종업태 간 과도한 경쟁과 과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유통업태의 총량제 실시 2) 대형판매시설의 도시계획적 적합성을 필수적으로 거처도록 제도화 3) 도시계획 심의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점포의 기준(현행 3,000㎡ 이상)을 하향조정(1,500㎡ 이상)하여 계획적 조절의 대상을 확대 4) 지역 중소유통업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와 조정을 통한 대형판매시설 출점 규제 방식의 제도화(일본사례) 5) 대형판매시설의 적정 입지 유도과 상업공간체계에 대한 정책지향과 적극적 대안 제시(도시기능 활성화, 도보상권의 보호, 대형점의 외곽입지 유도 및 대규모 계획입지 개발,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등) 6) 지역단위 상업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신규 출점, 점포확장 등 인허가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뒷

받침 7) 대형소매점에 의한 지나친 상권독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방법론 개발 8) 지역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하여 대형판매시설 입지갈등 조절기능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상인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침해와 관련된 지역주민으로 확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대형할인점의 경쟁요소는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 대량구매에 의한 물류비 절감, 쾌적한 쇼핑 공간, 가격경쟁력(ELDP),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상품정보력, 효율적인 인력관리, 고객관리 및 고객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판매촉진 수단 등에 있음. 그러므로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벤치마킹하여 간판과 출입구 정비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점포공간의 효율적 상품배치와 청결성 유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고객관리, 고객과 대화를 통한 구매성향 파악과 서비스 제공, 공용쿠폰과 공동상품권 발행을 통한 판매촉진.